윤수하 시인, 세 번째 시집 '숨 속의 숨'

삶을 끌어안는 일 '계속-다시' 사는 삶의 소중함 담아 출간

윤수하 시인

시집 '숨 속의 숨'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인 윤수하 시인이 세 번째 시집 '숨 속의 숨'을 출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시집은 시인의 생에 대한 깨달음을 담은 작품으로 독자들을 몸과 마음, 우주의 여정으로 안내하는 작품이다. 시집에 담긴 주제는 시공의 경계, 그리고 내적 고통과의 대면이다.

특히 이 시집에는 정신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시 쓰기를 가르쳤던 경험이 투영돼 있다. 시인은 아픈 영혼을 가진 정신병원의 환자들을 통해 삶을 끌어안는 일, '계속-다시' 사는 일의 소중함을 생각해보게 한다.

변종태 시인은 "시집 '숨 속의 숨'에서 마주친 시인은 냉정한 듯 담담하게 대상을 그리면서 때로는 냉소적인 어조로 대상을 그리기도 하지만, 그 속에는 따스함을 담고 있다"며 "세상의 온기가 다 식어가는 현실에서 지나온 길과 버려진 사물, 소외된 이웃에 대한 따스한 눈길은 시집을 덮고 나서도 오래도록 가슴을 따뜻하게 할 것"이라고 평했다.

윤수하 시인은 "이번 시집은 인간은 우주를 닮았고 그래서 모든 생은 소중하다는 이야기를 담고 싶었다"며 "이 시집으로 독자들이 존재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고, 마음을 비우고 채우는 실마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인 시인은 저서로 시집 '틈'(2014년), '입술이 없는 심장의 소리'(2018년)와 연구 서적 '이상의 시, 예술매체를 노닐다'(2016년)를 펴냈다. /장은성 기자

무주 최북미술관은 6일 해당 시설 내 다목적영상관실에서 무주장애인·노인종합복지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무주군, 기관 간 문화교류 길 열어

최북미술관, 무주장애인 · 노인종합복지관과 업무협약 체결

무주 최북미술관이 지역 내 기관들과 문화적 교류를 이어가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최북미술관은 6일 해당 시설 내 다목적영상관실에서 무주장애인·노인종합복지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날 협약을 계기로 무주 최북미술관을 비롯한 무주장애인·노인종합복지관은 2024년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한편, 네트워크 활동 및 사업공모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해심 행정복지국장은 "군민 다수가 이용하는 기관들과 문화적 협력체계를 구축한 만큼 공립미술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협업을 통한 기획전시와 특별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활동을 기대하셔도 좋겠다"고 전했다.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2024 최북미술관 문화적취약계층(노인) 협력 프로그램, '시니어 예술치유 미술관 나들이'를 진행한다.

최북미술관 기획 상설전시실과 세미나실, 공방 '다현재'에서 진행할 예정으로 무주노인종합복지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큐레이터와 함께하는 미술관 관람과 예술치료 수업(소품만들기, 자화상그리기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국립무형유산원, 전승공예품 인증제 공모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오는 31일까지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최영창)과 공동으로 전승공예품 인증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공모에 접수된 전승공예품은 서류 및 실물 심사, 현장(공방) 심사, 유해성 검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선정된 인증작은 국립무형유산원장 명의의 인증서와 인증패 수여를 비롯해 저작권 등록, 2024년 공예트렌드페어 참가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출품작의 상한가를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높여 보다 다양한 전승공예품을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모를 희망하는 사람은 전자 우편(exhibition@chf.or.kr)으로 신청 서류를 접수한 후, 4월 3~5일 방문 또는 우편(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06 한국문화재재단 별관 3층 전시장 '올')으로 실물 작품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무형유산원(www.nihc.go.kr)이나 한국문화재재단(www.chf.or.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승공예품의 뛰어난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가무형유산 전승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적극 행정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공동기획 전시

찾아가는 도립미술관 시군 공동 기획전시 발걸음

남원시 관관광시설사업소는 시립 김병종미술관에서 지난 5일 개막한 전시 '일상이 우리가 가진 인생의 전부'를 시작으로 2024년 찾아가는 전북도립미술관 시·군 공동기획 전시의 발걸음을 떼었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전북도립미술관 소장품 91점과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소장의 김병종 화백 작품 19점 등 총 110점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프란츠 카프카(Franz Kafka)가 "일상이 우리가 가진 인생의 전부"라는 명구로 일상의 소중함을 메시지로 남겼다면, 이번 전시는 작가적 시점에서 바라보는 세상을 통해 나와 너, 우리의 일상을 되돌아보게 한다.

전시는 5월 19일까지이나 매주 월요일 휴관하며, 무료 관람으로 문의는 전화(063-620-5660, 또는 063-620-5712)로 하면 된다.

미술관 측은 "본 전시는 엄마가 딸에게 인생에 대해 알려주는 서사 구조의 형태를 지니고 있기에 110점의 작품이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된 독특한 전시 구성이라며, 삶에 지친 모든 이들에게 주는 선물 같은 전시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한벽문화관, 22일까지 전시공간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전주한벽문화관(관장 김철민)은 오는 22일까지 전시공간 지원사업에 참여할 작가(개인 또는 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총 2팀을 선정, 최소 2주에서 최대 4주까지 전시 공간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은 회화, 조각, 설치 등 시각예술 전 분야로, 자격 기준은 만39세 이하의 개인이나 만39세 이하의 비중이 50% 이상으로 구성된 팀이다.

특히 올해는 장애 예술인을 지원하고 권리를 보장하고자 개인 또는 장애 예술인이 50% 이상으로 구성된 팀에 한해서 높은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예술가 및 단체는 전주문화재단(www.jjcf.or.kr), 전주한벽문화관(www.jt.or.kr) 누리집의 공지사항을 확인한 후, 첨부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mail@jt.or.kr)으로 접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박물관, 3월부터 목요시네마 뮤즈 무료 영화 상영

전북대학교박물관(관장 엄혁용)은 7일부터 지역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영화를 상영한다고 밝혔다.

꾸준한 사랑과 호응으로 13년째를 맞이하는 '목요시네마 뮤즈'는 지역민의 정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월별 주제로 지역민들을 맞는다.

이에 따르면 먼저 3월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기념하는 의미를 담아 전북을 배경으로 한 영화를 상영하는 것을 비롯해 4월에는 정치와 관련된 영화, 5월엔 위로와 힐링의 영화, 6월엔 클래식 영화, 7월엔 달 착륙 55주년 기념해 우주를 향한 인간의 탐험을 담은 영화들이 상영된다.

이어 8월에는 외로움과 소통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영화, 9월엔 문학보다 감동적인 아카데미 각본상 수상작, 10월 한국 독립 영화, 11월 인문학과 다양성을 수용하는 영화, 12월에는 고전 명작 등 다채로운 키워드로 지역민과 소통한다.

엄혁용 관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과 글로컬대학30 사업 추진 등 지역 발전에 앞장서는 전북대의 노력과 더불어, 박물관이 지역의 문화수요에 대응하며 문화역량을 키워가는 선봉에 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요시네마 뮤즈는 7일 오후 2시 박물관 강당에서 개막을 하며, 12월까지 매주 목요일 2시에 박물관 강당에서 무료로 만나볼 수 있다.

영화 관람 문의는 박물관 학예실(063-270-4088)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북의 역사 · 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 · 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정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아